

## 김은정 개인전 《가장 희미한 해》



〈숲의 소란〉

2021

캔버스에 유채

162x130cm

Photo©Yang IAn

### 전시개요

전 시 명 : 《김은정: 가장 희미한 해》

전시기간 : 2021년 4월 7일(수) - 4월 28일(수)

전시장소 :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문 의 : 02-720-1524~6

출 품 작 : 회화 26점, 도자 2점, 책 1권

### 담 당

박미란 miran@hakgojae.com

## 1. 전시 개요 및 작가 소개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는 2021년 4월 7일(수)부터 4월 28일(수)까지 김은정(b. 1986, 거제) 개인전 《가장 희미한 해》를 연다. 2021년도 1분기의 세 번째 전시며, 서울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전시명 '가장 희미한 해'는 윤원화의 책 『1002번째 밤: 2010년대 서울의 미술들』(위크룸, 2016)의 소재목 중 하나다. "지나간 시간의 기억은 일종의 꿈 또는 유령 같다"라는 글 첫머리에서 영감을 얻어 전시의 제목으로 끌어 왔다. 김은정은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청년 회화 작가다. 매일의 날씨와 생활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일상 속 사건들과 생각들, 감정들을 다양한 매체로 표현한다.

김은정은 1986년 경상남도 거제도에서 태어났다. 2011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와 시각디자인과 복수전공 졸업 후, 2019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과를 졸업했다. 에이라운지(서울), 가변크기(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선보였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서울), 일현미술관(양양), 한원미술관(서울), 의외의조합(서울)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2016년부터 '찬다 프레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디자인 스튜디오 겸 자신의 작업과 관련된 책을 만드는 출판사다.

## 2. 작품 소개 및 전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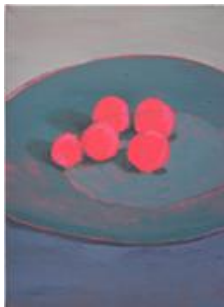
### ■ 주요 작품



〈오늘의 날씨〉  
2021  
캔버스에 유채  
100x70cm  
Photo©Yang IAn



〈다정한 얼굴〉  
2020  
캔버스에 유채  
15.2x10cm  
Photo©Yang IAn



〈다섯 해〉  
2021  
캔버스에 유채  
33x24.2cm  
Photo©Yang IAn



〈11시59분〉  
2021  
종이에 에칭, 아퀼라트  
29.7x21cm  
Photo©Yang IAn

### ■ 전시 전경



Hakgojae Design | PROJECT SPACE Installation view Photo©Yang IAn

### 3. 작가와의 대화

**Q. 전시 제목을 《가장 희미한 해》로 정했다.**

《가장 희미한 해》는 『1002번째 밤: 2010년대 서울의 미술들』(윤원화, 워크룸, 2016)의 소제목 중 하나이다. ‘지나간 시간의 기억은 일종의 꿈 또는 유령 같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이 상상력을 자극했고, 이후 ‘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태양계의 중심, 어디서나 빛나는 것. 그리고 인간을 둘러싼 각각의 존재가 갖는 유일무이한 가치와 동시에 그것의 연약함에 대해서다.

**Q. 근작의 소재들은 어디에서 왔나.**

나를 둘러싼 환경이 가장 크다. 날씨, 자주 가는 공원의 풍경, 만나는 사람, 동물과 식물에게 받은 영향이 작업으로 생산된다. 또한 말로 표현하는 것에 서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그림을 그리고 문학을 읽으며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와 성장 소설을 좋아한다. 시를 볼 때 단어들이 주는 생각의 파장이나, 소설 속 주인공에게 자신을 투영해 응원하게 되는 순간들이 흥미롭다. <녹지 않는 사람>(2021)은 영화와 소설 속 ‘여성의 서사’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것이다.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엄마, 언니, 동생, 딸 등 동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을 떠올리며 그렸다. 먹 드로잉들은 공원에서 수집한 ‘어린이 동상’들의 형상을 재구성한 것이다. 어느 날 오랫동안 거기 있던 형상이 자꾸만 기이하게 느껴졌다. 불편함을 지우거나 극대화하는 데에서 작업을 이어갔다.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날씨는 아주 먼 과거 혹은 미래에도 대기권이 있는 한 존재할 것이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며 공기는 순환한다. 그리고 거기에 내던져진 사람은 우리를 둘러싼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 날씨는 어떤 ‘공통의 경험들’을 말한다. 보편적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들을 날씨에 빚대어 본다. 구름(연기)은 피할 수 없는 순간이나 상황을 의미한다. 기체인 동시에 고체의 상태로, 시시때때로 모양이 바뀌고 아주 작은 틈을 넘나들 수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구름(연기)은 명확하지 않은 정체성을 가져 모호하고 제어할 수 없다.

**Q.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작업하는 점이 흥미롭다.**

서로 다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은, 마치 다른 언어를 익히는 것과 같은 묘한 긴장감이 있다. 같은 제스처에도 도구가 달라지는 것만으로 굉장히 다르다. 각각의 매체마다 한계와 장점을 익히고 그것을 조화롭게 쓸 수 있기를 소망한다. 어떤 매체가 내 작업에 적합한지 찾아보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처음 입학한 대학에서의 전공은 서양화였지만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동양화 기초’였다. 이후 홍익대학교에 입학해 판화과를 전공하고 복수 전공으로 시각디자인을 공부했다.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다 보니 통일성에 대해 고민하는 순간이 있었다. 흑백 드로잉 작업은 같은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담보할 수 있다. 또 날 것의 이미지를 채집하기에 적합한 기법이다. 주로 한지 위에 먹으로 그리는데 이 방식으로 그리면 모든 획의 흔적이 남아있어 생각의 흐름을 모두 볼 수 있다. 색을 사용하는 작업은 더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편이다.

## 4. 작가 약력

### 김은정

- 1986 경상남도 거제도 출생  
201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 졸업  
201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과 졸업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중

### 개인전

- 2021 가장 희미한 해,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2019 흠커밍, 가변크기, 서울  
2018 연기나는 사람, 에이라운지, 서울

### 단체전

- 2020 구름의 일각, 공간서울, 서울  
반짝이는 소란,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2017 일현 트레블 그랜트, 일현미술관, 양양  
나의 영토, 의외의조합, 서울  
멘토멘티, 한원미술관, 서울  
2016 Vertical line,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 서울  
낮선 이웃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 프로젝트

- 2020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피존밀크 포스터, 아르코 아트토크, 온라인 전시 선정  
2017 서울은 미술관, 팝업, 무인예술서점 <쫓>, 서울  
2016 동북부 미술대학 연계 발굴 프로젝트,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013 Without Losing Your\_, 오픈베타공간 반지하, 서울

### 출판

- 『난민들기』(찬다프레스, 2021)  
『잠』(찬다프레스, 2019)  
공저 『캐비닛. Vol.8: 예술가 여행이야기』, (일현미술관, 2018)  
공저 『탄생 쫓 책방』, (찬다프레스, 2017)  
공저 『지면전시』, (스페이스윌링앤딜링, 2015)

### 수상

- 2017 일현 트레블 그랜트상, 일현미술관, 양양